

실업계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발달

박 선 영(순천대학교 시간강사) · 공 인 숙(순천대학교 교수)

청소년기는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진로 발달이 가속화 되고 성숙 되는 시기로서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이다. 그런데 실업계 학생들은 성적 등의 요인으로 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진로와 적성, 직업 등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실업계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발달,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동부권에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여고 2학년 학생 337명이었다. 조사도구로는 박영애(1995)의 부모양육행동척도와 강종구(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수준 척도, 김봉환(1997)이 제작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 Cronbach's α , paired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추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여고생은 대체로 부모를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였고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온정·수용적으로 지각하였다.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은 중간값 보다 높은 반면, 진로발달은 중간값 보다 낮았다. 둘째, 여고생의 일반적인 특징인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 여고생의 성적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진로발달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 여고생의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과 여고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온정·수용적일수록, 어머니가 거부·제재를 덜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여고생의 성적향상과 더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온정·수용을 많이 하고, 어머니는 거부·제재를 덜 하는 것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여고생의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여고생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여고생의 진로발달에 차이가 있었다. 여고생은 자기비하를 적게 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 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았고 진로발달도 잘 되어있었다. 이는 여고생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여고생의 성적향상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